

뉴욕 증시 상승 마감...나스닥 사상최고 행진

등록 2017.01.12 07:11:08



【뉴욕=AP/뉴스시스】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한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증시가 상승마감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98.75(0.50%)상승한 1만9954.2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6.42포인트(0.28%) 상승한 2275.32에 문을 닫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도 11.83포인트(0.21%)오른 5563.65로 종료됐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마감 가격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지수는 장중 변동성이 높은 모습이었다. 다우존스는 상승 출발했으나, 개장 이후 상승폭이 점차 둔화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오전장 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들어 점차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날선 비판을 한 제약 업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입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약업체들에 강한 불신감을 피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위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또 부임 직후 멕시코와 협상에 돌입해 불법 이민자를 차단할 국경의 장벽 건립비 문제를 논의하고, 해외로 떠난 미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온쇼어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거듭 피력했다.

한편, 미국의 서부텍사스유(WTI)는 이날 뉴욕시장에서 1.43달러(2.8%) 오른 배럴당 52.2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영국산 브렌트유는 런던에서 1.46달러(2.7%) 상승한 55.1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이자는 연 2.37%로 전장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했다.

yunghp@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